

예술가 이규환

색동 예술가가 꾸는 색동 꿈

오랜 세월 우리에게 꼬마아이의 웃으로만 기억되던 색동. 너무 흔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색동이 최근 한 예술가를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다. 색동을 통해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예술가 이 규환. 지금 이 순간도 그의 가슴은 색동을 위해 뛰고 있다. 글_김주영·사진_강태욱



서울 청계천 5가 오간수다리 부근에는 이규환의 대형 색동 타일벽화가 있다. 청계천의 여러 작품 가운데에서도 특히 인기가 높아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 찍으려는 관람객들로 늘 북적인다.

화려하고 선명한 색도 눈에 띄지만, 흡사 커다란 조각보처럼 보일만큼 생생한 그 질감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까닭이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관람객들의 손을 많이 탄다.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필시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기 마련이고, 이내 감탄사를 내뱉으며 신기해한다. “어머, 천이 아니구나. 세상에, 타일이잖아!”

그런 홍겨운 감탄사들로 그의 작품 앞은 늘 와글와글 소란스럽다. 색동으로 작업하며 색동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앞장서온 작가 이 규환. 작품 앞에서 나누던 우리의 대화는 청계천 정점다리에 앉아서도 한참이나 이어졌다. 동화작가처럼 해맑은 심성의, 그리고 섬세한 감성을 지닌 작가였지만 색동에 관해서라면 타일 굽는 가마 속 불길 못지않은 열정을 지녔기 때문이다. 색동을 향한 순수하고 거침없는 욕망(!)이 빛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자.

“상투적인 질문입니다만 색동으로 작업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색동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유럽 미술관 배낭여행을 한 후

부터입니다. 프랑스 센 강을 끼고 좌우로 서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미술관 등을 보면 그들 선조가 물려준 유산이 부럽기도 하고 그들이 예술적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강 주변에 보이는 것은 고층 아파트뿐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옛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해석이 되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색동을 찾았습니다.”

“색동의 미학이랄까요, 아프리카에서 혹은 중국의 소수민족들도 원색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색감과 우리 색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색동에는 우리 민족의 철학과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색동옷은 고구려 벽화의 옛 여인 옷차림에서도 볼 수 있고, 동북아시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색동을 실생활에 아름답게 풀어쓴다는 없습니다. 색동의 색 배합은 음양오행사상의 상생과 상극의 개념이 바탕이 됩니다. 색동은 만물이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기쁨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옛 사람들은 색동이 나쁜 액운을 막아 준다고 믿었기에 첫돌이 되면 무병 장수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기에게 색동옷을 입히고 어른들은 혼례용 옷으로 입었습니다. 또 색동 작업을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색동 철학이 생겼습니다. 색동 하나하나 고유의 개성이지요. 색동은 홀로 색동이 될 수 없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야지요. 그것이 우리네 인생살이와 같아요. 각각 고유의 개성과 어울림. 또 색동 안에 하얀색이 있는데 그것은 ‘쉼’ 이에요.”

“지나간 일입니다만, 색동의 강렬함이랄까 원색의 선명한 색상을… 뛰랄까, 경박한 것으로, 고상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던 때도 있었

지 않습니까. 한때 자동차는 무조건 검정색 일색이었죠. 색동으로 작업하던 초기, 사람들의 그런 인식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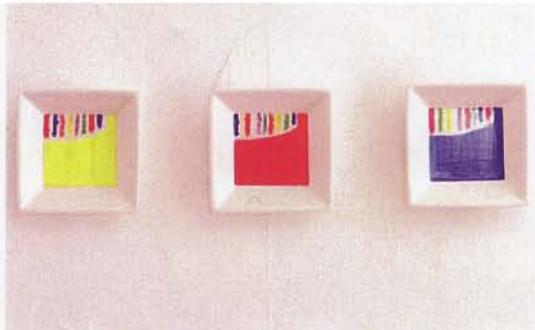
“지금은 우리 것 되찾는 문화 흐름에서 그렇게 어려운 점보다는 색동을 사랑하시는 분을 많이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김주영 선생님께서도 색동을 많이 사랑하시지요? 화가 박생광 선생님의 작품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무당 그림이니 하면서 인정받지 못했지요. 얼마 전 궁중 요리가 황혜성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그분이 걸으셨던 길에 대해 짧게 소개했더라고요. 고인이 있었기에 궁중 요리가 전통을 잊고 <대장금>을 통해서 한류문화 흐름에 영향을 주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새로운 길을 가는 어려움’이 밀려와 찡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김주영 선생님의 ‘예술은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훗날 그 어려움도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가고 있어요.”

색동, 아이 옷을 떠나 세계를 날다 “차츰 색에 대해 눈을 떴다고 할까. 또 이규환 선생의 작업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을 테고요. 색동의 재발견, 현대적 재해석이랄 수 있는데, 색동으로 작업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작가로서 보람이랄까 자부심을 느낄 때도 많았을 듯싶은데요.”

“2005년 11월 금호미술관 전시회에서 한 관람자가 제게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동인데! 여태 너무 흔해서 방치해 놓고 아무도 돌보지 않은 색동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니!’ 가장 큰 기쁨은 사람들이 색동 앞에서 잊었던 꿈·사랑·동심을 찾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것은 한국인이나 외국인 모두 마찬가지지요. 그것이 예술의 힘이지요. 제 작업을 통해서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색동이 많이 친숙해진 것을 느낄 때 – 옷에서 탈피하여 다른 장르로 확대되었을 때 –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을 때, 그때 보람을 느낍니다. 마치 색동 꼬마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무한한 꿈을 심어주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2002년 월드컵 즈음 개최하신 <색동의 빛! 숨! 영!> 전시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전시의 반응과 성과에 대해 자랑을 좀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2002 월드컵 때 인사동에서 <색동의 빛! 숨! 영!> 전시회를 통해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색동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 미국에 초대돼 전시회를 열면서 미술로 우리 문화 외교를 한 셈이지요. 매스컴에 알려지면서 색동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업체 로고나 거리에 색동이 입하고 있습니다. 색이 들어가는 것이면 색동이라 표현합니다. ‘색동 두부’ ‘색동 한약’까지 색동



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기쁩니다.

“<색동의 빛! 숨! 영!> 이후 해외에서 초청 전시를 열었을 때 해외 관객들

의 색동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해외에서도 관객들이 색동에 대해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하고 좋아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한국인이 색동 앞에서 기쁨을 느끼듯이 그들도 같이 기쁨을 느낍니다. 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색동이 있었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더욱 색동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듭니다. 해외 관객은 물론 한국 교포 자녀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도요. 해외교포 자녀들에게 우리 문화를 더 많이 알리고 심어주면 정체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끼지요.”

“한국의 전통 소재로 작업하다 보면 작가인 동시에 문화 외교 사절로서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느끼실 텐데, 한국 문화를 소개해본 작가로서 경험과 우리의 색동이 문화상품으로서 승부를 걸만 한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예! 색동은 문화상품으로 세계에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저는 문학·음악 등 모든 예술은 드러나는 외교 사절보다 더 친근하게 세계





색동 작가 이규환의 꿈꾸는

색동 마음! 색동 사랑! 색동 꿈!

색동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빨강은 파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색동은 빨강·파랑·노랑 혼자서 색동이 될 수 없습니다.

색동 마음은 각각의 색깔이 어울려 함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색동은 따뜻한 세상을 꿈꿉니다.





인에게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는 잘 몰라도 고흐는 잘 알고 있듯이 말이죠. 제 꿈은 세계 모든 가정에 색동 문화상품이 놓이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도시 바로셀로나는 건축가 가우디를 찾는 관광객으로 멀고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색동에 대한 상품 아이디어는 많지만 그것을 같이 풀어낼 기업이 필요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다. 덜 알려진 정도가 아니라 왜곡된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문화 바로 알리기에도 힘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에 편입시킨 중국은 윷놀이, 널뛰기 같은 우리 문화까지 자신들 것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어느 외국 관광 사이트에서 한복이 일본 기모노 영향으로 만들어졌다는 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외국 디자이너가 한글을 문화 트레이드 마크로 했으면 좋겠다는 기사가 나온 후에 한글 사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자존심, 이제 색동을 통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청계천 작업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계천 색동은 색동저고리 모양을 형상화한 것과 옛 보자기를 재해석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업은 혼자 할 수 있으나 청계천 색동작업은 색동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에서 색동을 사랑하는 많은 분과 신화조경 최 부사장님과 오 실장님 도움으로 색동 벽화가 되었습니다. 도예 분야에 권위 있는 우일요에서 같이 작업을 했고 김 사장님과 전문가 맹 선생님 도움을 받아 2개월간 도자기에 색칠하는 법을 배워서 제가 직접 칠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자기판을 만들고 먼저 초벌 구이를 한 후에 그 위에 색을 칠하고 색상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250~1300°C 이상 고화도 작업을 했습니다. 청계천 색동작업은 도예 분야에서도 새로운 작업이었고 새 출발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도예에서는 색동처럼 강렬한 색을 쓰지 못했지요. 색동 이후에 도자기 벽화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색동의 현대적 재발견이 될 수 있는데, 색동의 생활화라는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도자기에서 출시한 색동시리즈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예! 물론 아이디어가 넘칩니다. 화장품, 가전제품, 그 외에도 무궁무진합니다. 어느 날 작업 스케치 노트를 보고 저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물이 색동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한국도자기의 경우는 김 사장님과 디자인 실장님의 색동 사랑으로 색동이 기업과 실생활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제품이 아

이 알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색동 작가로서 꿈이랄까 아니면 포부가 있다면? 색동을 입힐 수 있는, 아니 색동을 되찾아 주어야 할 영역도 많을 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 누구라도 색동이 한국의 것임을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떠신지요. 작품 계획이나 특별한 전시 일정을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내년 초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전시 날짜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 벌딩에 색동 설치 작업을 기업과 공동으로 하고 싶습니다. 가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색동을 다 풀어낼 수 있을까 생각하곤 하지요. 제 큰 꿈은 세계 30여 개 나라에 ‘색동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자부심을 알리고 나를 찾을 수 있는 색동 공원. 그것이 제 마지막 꿈입니다. 2005년 색동 전시회 때 사람들과 색동 공원 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계 지도에 색동 공원을 만들 곳을 찾아 색동싹을 심으라고 했더니 100여 개 나라에 표시가 되었더군요. 아름다운 색동 공원이 세계 여러 나라에 있다는 것을 상상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미국에서 전시를 했을 때 그 때 한·미 100주년 기념 초대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국제한국공원’이라 이름 붙은 공원을 가 보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원이 아니라 마치 폐허처럼 느껴져, 공원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100년 전 미국 땅을 처음 이민 와서 고생한 사람들과 지금도 두 나라 간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마음고생하는 교포 아이들 생각이 나서였습니다. 외국에 색동 공원이 생기다면, 마치 로댕갤러리가 여러 나라에 있듯 얼마나 뿐듯할까요. 한국 색동문화가 저절로 알려지고 교포아이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지요. 한국에 모델로 색동 공원 하나가 생기면 외국에서는 쉽게 뜻 있는 분 힘으로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의 가우디가 된 것은, 가우디 예술이 꽂피고 가우디로 후손이 먹고살게 된 것은 구엘 백작의 후원과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색동 작업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색동 공원을 찾는 수십, 수백억 사람들과 색동을 후원할 색동 구엘을 찾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색동 구엘을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색동 꼬마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청계천 색동 벽화작업을 하면서 마음에서 색동 꼬마들 노랫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과거의 색동 꼬마, 오늘의 색동 꼬마, 내일의 색동 꼬마. 내일의 색동 꼬마들에게 우리는 문화 유산으로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